

당귀



생약명은 당귀이며 작물명은 참당귀로 주로 뿌리를 이용한다. 주요효능은 보혈(補血), 진정(鎮靜), 진통(鎮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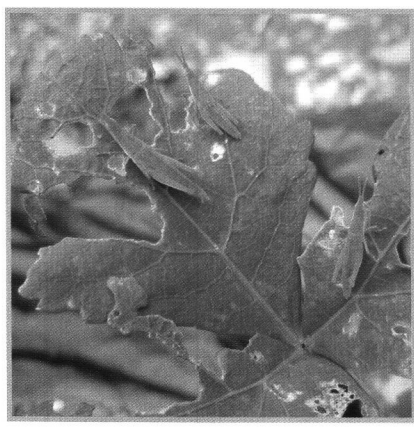


안태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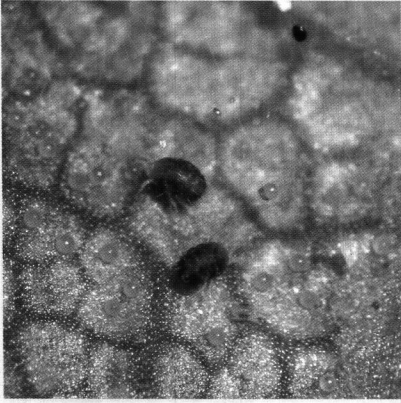
모잘록 증상 ●●●

당귀 종자를 봄에 파종하여 묘를 키울 경우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당귀는 종자를 파종하여 묘를 키우는 기간이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비교적 길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토양 서식균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병발생 초기에는 어린묘의 땅에 붙은 줄기 부분이 잘록해져 쓰러지고 병발생이 심할 경우 곰팡이 균사가 거미줄처럼 퍼져 어린묘 전체를 죽이게 된다. 가을 파종이나 이른봄 저온상태에서 파종하여 묘를 키우는 경종적 방법을 권장한다.



섬서구메뚜기 피해 ●●●

섬서구메뚜기의 성충은 당귀 잎과 색이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으며, 1~2마리가 순식간에 지상부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데, 주로 8~9월경에 새로 개간한 야산근처의 밭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배추, 무, 가지, 감자, 당근, 강낭콩 등을 기주 식물로 하여 증식하므로 재배시 상기 언급된 작물과의 혼식을 피하고 되도록 이들 작물을 가까이에서 재배하지 않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응애류 피해 ● ● ●

재배시 잎에 발생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다. 년중 발생하며 초기에는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황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는다. 잎 뒷면에 발생하는데 응애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배설물, 거미줄 같은 것이 생겨 지저분해진다.

발생이 가장 심한 때는 여름철 고온건조한 시기이며 잎 뒷면에 1~2마리 발생시 등록약제로 바로 방제해야 한다.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점무늬병 ● ● ●

잎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갈색의 작은 점무늬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병반으로 커지면서 찢어지고,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퇴색하고 말라 죽기도 한다. 주산지는 주로 강원, 경북의 고랭지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기에 주로 발생하는 피해가 심하지는 않으나 당해년도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등록약제로 방제토록 한다.



제초제 피해 ● ● ●

당귀에 등록되어 있는 제초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서 종근의 이식 후 바로 토양에 살포하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당귀의 생육 중 화본과 잡초만을 죽이는 선택성 제초제가 있다.

당귀의 생육 중에 비선택성 제초제가 당귀에 살포되면 전체적으로 잎을 말려 고사시키거나 잎에 퇴색한 원형의 무늬를 만든다. 농약사용지침서상의 사용시기 및 적용 가능 잡초 종류를 확인 후 사용토록 한다.